**[한샘]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영업**

**1. 본인 소개**

[상황대처 능력과 열린 자세]

이성적인 아버지와 감성적인 어머니, 너무나도 다른 두 분 사이에서 자라왔기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눈치와 상황파악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두 분 사이에서 이쪽과 저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것이 어릴 땐 힘에 겹고 사춘기 시절 방황의 시작이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생각 해 보면 그런 점 들이 오히려 저의 장점의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런 성향 덕분에 저는 이제 가정을 나아가 사회생활과 새로운 업무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익힐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과, 중제 혹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상황대처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책임감]

대학교 3학년 시절,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에 관심이 있어 실험을 했었습니다. 슬러리 제조 시, 시료들을 실험용 믹서에 넣어 갈아서 사용하면 그만인 것을, 고효율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겠단 책임감 때문에 저는 시료들을 막자 사발에 넣고 손수 3시간씩 매 실험마다 갈아 사용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열정적으로 몰두하기에 조금은 융통성 없이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믿음과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유연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은 답답하거나 일 중독으로 보일 만큼 어떻게든 책임지고 임무를 성실히 완수 하고자 합니다.

**2. 사회봉사활동, 동아리**

[침착함과 재도전을 선물해 주고 가신 할머니]

“시속 120km 자동차의 속도가 누구의 눈에는 빠르고, 누구의 눈에는 느린 것처럼 세상사 다 생각하기 나름이란다.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조절하면 되지 않겠니?”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함께 노인정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던 때, 저와 제일 가까웠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침착함과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 주 에 갔을 땐 건강악화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 하였습니다. 본인 몸조차도 버거우신 분이 제게 그런 말을 애써 힘을 내어 해주시고 가신 것을 보면, 손녀 같은 제가 모난 성격을 가진 게 많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그 분을 통하여 마름모 마냥 울퉁불퉁 모난 성격이 지금은 동그란 원처럼 유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희로애락이 확실하여 조금은 다혈질 이였던 저에게 할머니의 그 말씀 한 마디는 느긋할 줄 아는 법, 한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보는 법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잘 못됐다고 울며불며 화를 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침착하게 다시 한 번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그리고 ‘용기 내어 더욱 완벽히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 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큰 선물이 된 할머니의 저 말을 항상 되새기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잘못된 점은 더욱 완벽히 업그레이드 시키려 노력합니다.

**3. 입사 후 포부**

[호기심과 적극성을 통한 완벽한 업무수행]

‘플라나리아’라는 생물이나, ‘흑운모’라는 암석을 아십니까? 호기심 대마왕인 저는 바비 인형이 아닌, ‘플라나리아’를 잡아 몇 번까지 잘라도 재생이 되나 실험 해보며 놀았었습니다. 혹은 냇가에서 반짝이는 패스트리 같은 돌을 주워, 한 겹 한 겹 벗겨내어 그 암석 비닐들을 믹서기에 갈아 말려서, 반짝이 가루 마냥 얼굴에 바르고 다녔었습니다.

한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흑운모 라는 암석이고, 샴푸와 각종 화장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이 있듯이 아직도 저의 호기심과 적극성은 이처럼 계속 샘솟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적극성! 이 두 가지 저의 무기로 완벽한 업무수행을 이뤄, 한샘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땅을 가리지 않는 농부]

좋은 농부에게 있어 나쁜 땅은 없습니다. 어떤 업무이던지 항상 진지한 자세와 성실함으로 임할 것이며,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부는 작은 것 이 아닌 전체를 볼 줄 압니다. 일도 일이지만, 사내 분위기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살 필 줄 알고 업무의 하나로 여겨, 일이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가 되어,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일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의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보름이 넘게 바르셀로나와 시체스를 여행 다닐 만큼 배짱이 좋으며 어떠한 일을 위험하다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행여 라도 회사나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을 해결하고 못하고에 앞서, 그 문제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능동적이고 행동력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A4용지에 몇 줄로 저를 알리기엔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따라서 면접의 기회를 통하여 저를 보다 더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한샘의 무한한 발전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